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젓밥에만 눈이 어둔 정치인들

시중이 주토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물상식한 정치인들이 오물을 마구 뿌려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밝음과 맑음을 심어 가는 데 주력해야 될 계층이 말이다. 그러겠다고 출사를 했으면서도 선거 때마다 온갖 미사여구로 국민들을 현혹한 자들은 누군가 바로 정치인인 당신들 아닌가.

길가는 사람마다의 손을 부여잡으면서 잘하겠다고 90도 각도로 절을 했던 작자들도 당신들 아닌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 골목, 저 골목 헤집고 다니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도 당신들이다.

오로지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언제 당신들에게 정치한다고 했는가. 당신들 입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스스로 했잖은가. 그것도 자기 한

몸 다 바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랬잖은가.

그런데 지금은 뭔가. 국민들 사이에 당신들 안중에도 없잖은가. 때문에 국민들은 불쾌지수가 만땅이란 말이다.

오로지 자신의 입신영달과 집집 그리고 패거리 의식만 주유하고 있는 당신들 어찌 보면 당신들은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해물이 되어가고 있던 말이다. 당신들에게서 참다운 리더십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것이 일이다. 그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 지겹지도 않은가.

일을 안하면서 왜 세비는 꼭꼭 챙겨 가는가. 외우는 또 뭇 때문에 하는가.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인줄 아는가. 이 모든 돈들이 국민들의 혈세 아닌가. 국민들을 위한다는 약속들이 오

려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썩어빠진 정신으로 살아가는 당신들이 정치를 알기나 하는가. 자고로 정치(政治)란 자신과 타인의 부조화와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라 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는 들어있지 않는 것이다. 타인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던 말이다.

정치는 다른 말로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 한다. 즉 자신을 바로 닦은 후 남을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치인은 먼저 자신의 조화롭지 못한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스려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곤란함, 부조화로운 면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이다.

얼마 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손 한번 안 잡아 줬다고 어깃장을 부리는 쪽수들도 있었다. 고의가 아니라는데도. 오라지도 않은 행사에 참석해서 큰 대접받으려 했었는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숙연한 척이라도 하면 어디가 더냐는가. 당신들이 따뜻한 방에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 때 1980년 5월의 광주는 피바다였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신들이 양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빨갱이라는 오명으로 숨어 살아야 했던 민주투사들을 단 한번만이라도 고운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는가.

단 한번만이라도, 1980년 5월, 광주는 참으로 끔찍했었다. 하지만 그날의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초석이 된 것 아닌가.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마음껏 악쓰고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닌가 말이다. 지금 악쓰고 몰상식한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의 대부분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썩 소리로 못하고 살아왔던 쪽수들이 아닌가. 그렇잖은가.

社說

불법주정차 근절해야 한다

소화전이나 도로 모퉁이 등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전국에서 5만건을 훌쩍 뛰어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주정차에 얼마나 감각이 무딘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모두 5만 688건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1889건인 셈이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다. 이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2만 9680건(52.4%)으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도로 모퉁이(1만 2352건 ·

21.8%), 버스 정류소(9011건 · 15.9%), 소화전(5645건 · 10.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만 5496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부산시(3563건) 순이었다. 초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공고 수정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도 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다.

시행 첫째 주엔 신고 건수 가운데 과태료 부과 비율이 26.9%였지만 넷째 주엔 56.4%로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긴급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바른 주정차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陸階納陛

오를 섬들 들일 대궐의섬들

승 계 남 폐

陸階納陛 > 뜻: 문무(文武) 백관(百官)이 계단(階段)을 올라 임금께 남폐(納陛)하는 절차(節次)인.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지진이란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 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준다. 몇해전 경주에서 큰 지진 및 꾸준한 여진 발생을 통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을 알아보자.

집안에 있을 경우는 테이블 밑으로 몸을 보호한다. 사용중인 불을 끄고 혹시 누출될지 모르는 가스나 전기를 차단하고 창문을 열어 둔다.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둔다. 집 밖에 있을 경우는 낙

하물에 주의하고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한다.

특히 지진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된다. 학교에 있는 경우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고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백화점, 마트에 있는 경우는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에 있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한다.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다.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대피한다.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는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해안에서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로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요령을 알아보자.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동인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고 있도록 한다.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대피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후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지진발생시 장소별·상황별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잘 숙지하고 더불어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준비해 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아두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진민호 /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